

저용량 아스피린 5년 복용시 폐암 발생을 최대 13% 감소

이대목동병원 연구팀 연구 결과
40세~84세 대상 예방효과 분석

100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의 5년 이상 장기 복용이 폐암 발생을 최대 13%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아스피린의 폐암 예방에 관련된 많은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은 대상자를 장기간 코호트를 통해 연구한 결과라고 주목을 끌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12일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팀과 직업환경의학과 하은희 교수팀이 '저용량 아스피린의 장기 복용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의 예방 효과'란 제목의 연구 논문을 미국의학협회가 운영하는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200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초로 전국민 대상의 후향적인 코호트 연구의 결과다. 천은미·하은희 교수팀은 40세부터 84세까지의 2009~2010년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한 1296만9400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00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에 따른 폐암 발생의 예방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이번 연구 전체 대상자 가운데 폐암 발생 환자는 1296만9400명 중에서 6만3040(0.5%)명이었으며 폐암 환자의 평



천은미 교수 하은희 교수

균 나이는 66.4세, 4만5,156(71.6%)명이 남자, 1만7,884(28.4%)명이 여자였다.

추적 기간 동안 아스피린을 전혀 복용하지 않은 군은 1098만7417(84.7%)명으로 나타났고, 1~2년 복용 군이 75만992(5.8%)명, 3~4년 복용 군이 50만6945(3.9%)명, 5~6년 이상 아스피린을 복용 군은 37만1062(2.9%)명, 7~8년 이상은 24만528(1.9%)명, 9년 이상 장기 복용군은 11만2456(0.9%)명이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100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을 5~6년 복용시 폐암 발생 위험이 4% 감소, 7~8년 복용시 6% 감소, 9년 이상 복용시 11%의 감소 효과를 보이는 등 복용 기간에 따라 유의하게 폐암 발생 빈도가 감소했다. 특히 성별, 비만, 흡연 여부에 관계없이 저용량 아스피린의 장기 복용군이 복용 기간에 따라 폐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에서 저용량 아스피린을 5~6년, 7~8년, 9년 이상 복용한 군에서

각각 폐암 발생 위험이 복용 기간에 따라 각각 5%, 7%, 13%로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65세 미만의 젊은 연령에서는 복용 기간에 따라 폐암 발생 감소 위험이 각각 7%, 1%, 1%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당뇨가 없는 경우는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군에서 5~6년, 7~8년, 9년 이상 등 복용 기간에 따라 각각 4%, 6%, 13%의 유의한 폐암 발생의 감소를 보였으나 당뇨가 동반된 경우는 복용 기간에 따라 3%, 2%, 5%로 아스피린 복용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의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즉 65세 이상의 연령군과 당뇨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5년 이상의 100mg 이하 저용량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면 연령, 성별, 비만, 흡연 여부에 관계없이 유의하게 폐암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천은미 교수는 "저용량 아스피린은 가격이 매우 저렴해 경제적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누구나 구입과 복용이 용이하며, 부작용 면에서 매우 안전한 약물로 뇌,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되는 약물"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 흡연자에서도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는 폐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약물로 권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대웅제약이 지난 9~10일 서울 비스타 워커히 호텔에서 '나보타 미국 FDA 승인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웅제약, 나보타 美 FDA 승인 심포지엄

글로벌 대규모 임상결과·시술법 공유

대웅제약은 지난 9~10일 서울 비스타 워커히 호텔에서 개최된 '나보타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 기념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2월 1일(미국 시각 기준) 국내 보툴리눔 독신 최초로 FDA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한 나보타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국내 미용성형관련 의사 7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항노화성형연구회 이주현 회장과 대한피부항노화학회 임동진 부회장을 좌장으로, 단국대학교 피부과 박병철 교수, 세브테이즈 성형외과 황승국 원장, 그레이스 성형외과 최문섭 원장, 샘김 성형외과 김삼원장이 연사로 나서 '나보타의 글로벌 대규모 임상결과'와 '나보타 시술법'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보타의 FDA 승인까지의 발자취와 FDA의 cGMP 승인을 획득한 최신 공장시설에 대한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나보타의 감압건조 공정을 강조한 더모독신 시술법' '의사와 환자에게 FDA 승인이 가지는 의미' '나보타와 필러를 활용한 풀페이스(full face) 시술법', 그리고 '나보타를 활용한 탈모치료법'이 소개됐다.

FDA 승인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 최문섭 원장은 "보툴리눔 독신 시술 시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항상 동일한 효과가 예측되는 제품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이와 같은 예측 가능성은 우수한 품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품은 이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보타는 올 봄 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며,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심사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에는 판매승인 여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경옥고, 미세먼지로 인한 폐손상 예방

광동제약·경북대 연구팀

기도·염증 등 호흡기 보호 효과 확인

광동제약 경옥고가 미세먼지로 인한 폐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 보건 연구 저널'에 발표됐다.

12일 광동제약은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배종섭 교수팀이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염증 반응에 대한 경옥고의 억제 효과'라는 제목의 동물 시험 연구 논문을 통해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체내 산화 스트레스 및 기도 염증을 대한 경옥고의 호흡기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미세먼

지(PM2.5)로 시험용 쥐의 폐손상을 유도했으며, 경옥고 투여군과 비투여군 사이에서 염증성인자, 활성산소(ROS), 혈관 투과성 및 폐조직 변화 추이를 관찰했다. 연구는 세포실험과 쥐를 이용한 동물 시험으로 각각 수행한 뒤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미세먼지는 혈관 내피세포간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해 혈관 투과성을 높인데, 이는 각종 독성물질과 염증성 단백질, 유해물질을 조직으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시험 결과 미세먼지에 의해 정상 수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혈관 투과성이 경옥고 투여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혈관 상호 작용 붕괴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p

38 전사인자(외부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염증반응을 높임) 발현 또한 경옥고를 투여한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종섭 교수는 "경옥고의 효능은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여러 문헌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을 뿐 아니라, 다수의 연구 논문을 통해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며 "이번 시험을 통해 미세먼지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폐 손상 등 호흡기를 포함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경옥고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2018년 5월부터 7개월간 진행됐으며 시험용 쥐에게는 미세먼지(PM2.5)와 광동제약의 광동 경옥고를 투여했다.

/이세경 기자

뇌전증 치료용 대마, 오늘부터 구입 가능

대체치료제 없는 난치질환 치료 목적

뇌전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부터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대마는 그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날 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허가된 의약품은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제인 사티벵스(Sativex), 항암 치료 후 구역 및 구토하는 환자에 쓰는 마리놀(MARINOL)과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 환자에 투여되는 세사메트(CESAMET) 등 4종이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급승인을 받은 후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세경 기자

손목시계 보듯 혈압측정... 편하게 심방세동 관리

보령 A&D메디칼 '손목형 혈압계'

보령A&D메디칼이 12일 새로운 손목형 혈압계(모델명 UB-525·사진)를 출시했다. 신제품 UB-525는 화이트의 ABS 소재를 적용하여 세련된 느낌을 주고 내구성이 향상됐다. 약 90g(배터리 제외 시)의 경량 사이즈로 다양한 장소에서 휴대 가능하며, 쉽고 간편하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품의 화면에는 혈압 측정값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혈압 등급이 표시되며, 평균 혈압값 계산 기능과 함께 혈압 측정 데이터를 최대 60회까지 저장 가능해 일상에서 혈압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이 발생 시 이를 감지하는 기능도 탑재하여, 가정뿐 아니라 여행 등 휴대하며 간편하게 질환을 예방, 관리할 수 있다.

심방세동(AFib)은 분당 400~600회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부정맥의 일

종으로, 뇌졸중 또는 다른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발작성 심방 세동 환자는 가슴이 두근거림, 흉통, 호흡곤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일상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만성으로 전환되면 이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동국제약 "센시아로 센스있는 화이트데이 선물!"

동국제약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동국제약 기업 블로그를 통해 '센시아와 함께하는 센스있는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정맥순환장애는 남녀 모두에게서 발생하지만 30~50여성의 66%가 경험할 정도로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증상의 관리를 남편 또는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이벤트는 '센스있는 사람, 시선 집중! 아내와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이라는 타이틀로 오는 13일 까지 동국제약 기업 블로그에서 진행되며, 당첨자는 14



일 발표된다. 화이트데이를 맞아 사랑하는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 응모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